

Don't beg for the right to live, take it!
2009 빈/곤/과 불/평/등/에 맞/서/는 학/생/포/럼

대학, 비정규노동을 말하다

2009년 5월22일(금) ~23일(토)
연세대학교 제1공학관 A018호

대학 비정규직과 함께 하는 학생네트워크
<http://club.cyworld.com/barricade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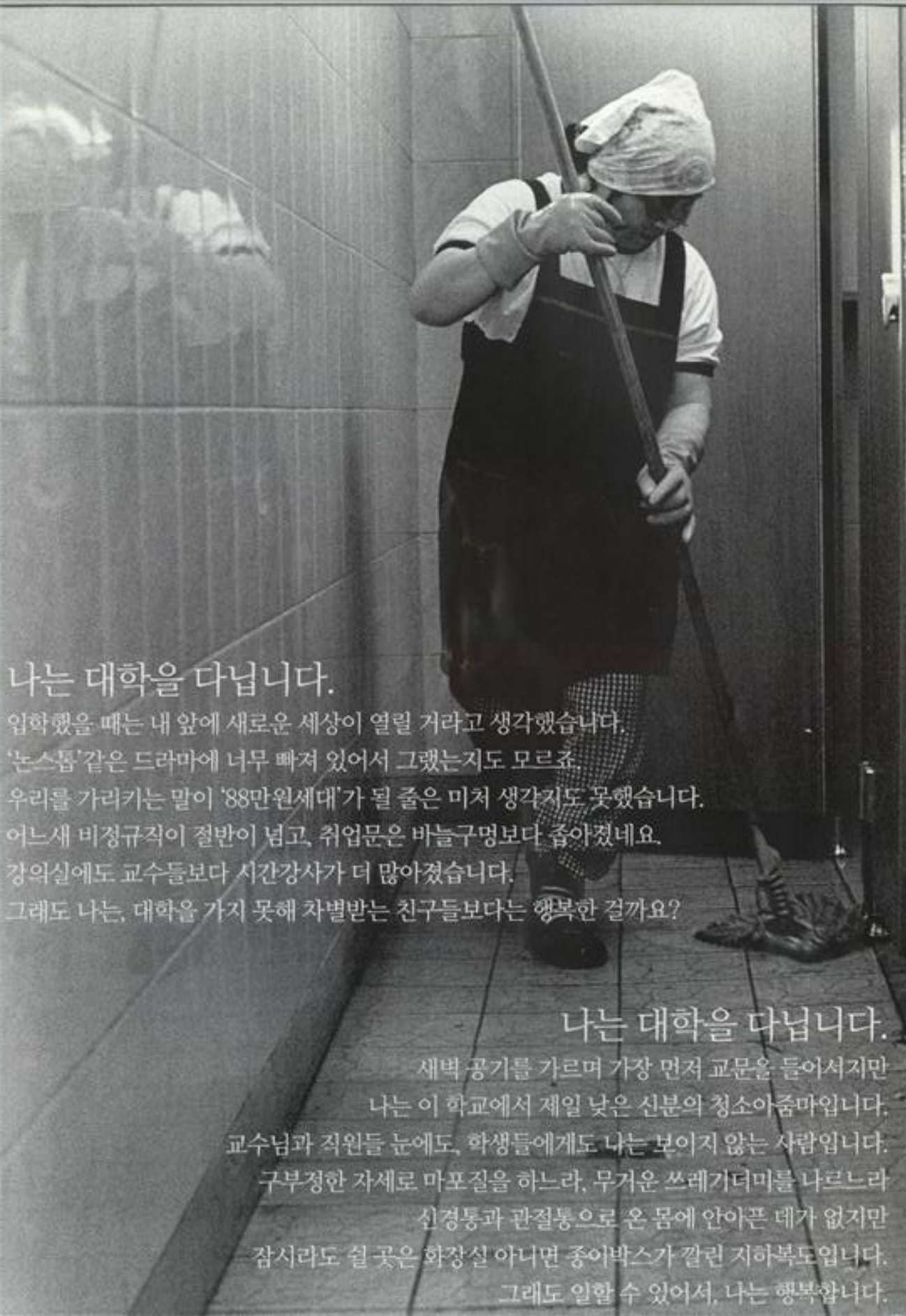
노동의 대가는 현금
현금의 대가는 더 많은 현금
더 많은 현금의 대가는 악의에 찬 경쟁
악의에 찬 경쟁의 대가는 - 우리가 사는 세상 -
-DH로렌스, 임금 Wage

2009 빈/곤/과 불/평/등/에 맞/서/는 학/생/포/럼 대학, 비정규노동을 말하다

- 참가방법 : 20일까지 신청서 접수 혹은 포럼 블로그, 싸이클럽에 신청
- 문의 : 010-5446-4407(학생네트워크 조윤)
02)701-8138(공공노조 서경지부)
블로그 : blog.naver.com/stunet2009
싸이클럽 : club.cyworld.com/barricade2008
- 후원 :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서울서부비정규센터(준), 독립영화배급지원센터

대학 비정규직과 함께 하는 학생네트워크는요
그동안 학내에서 꾸준히 비정규노동자들과 연대해왔던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2008년10월에 구성한 네트워크 모임입니다.
학교별 상황공유와 활동지원, 청년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비정규연대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 비정규노동조합 및 단체들과의 공동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노동 문제에 관심을 갖고 연대하기를 원하는 청년학생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싸이클럽 club.cyworld.com/barricade2008



나는 대학을 다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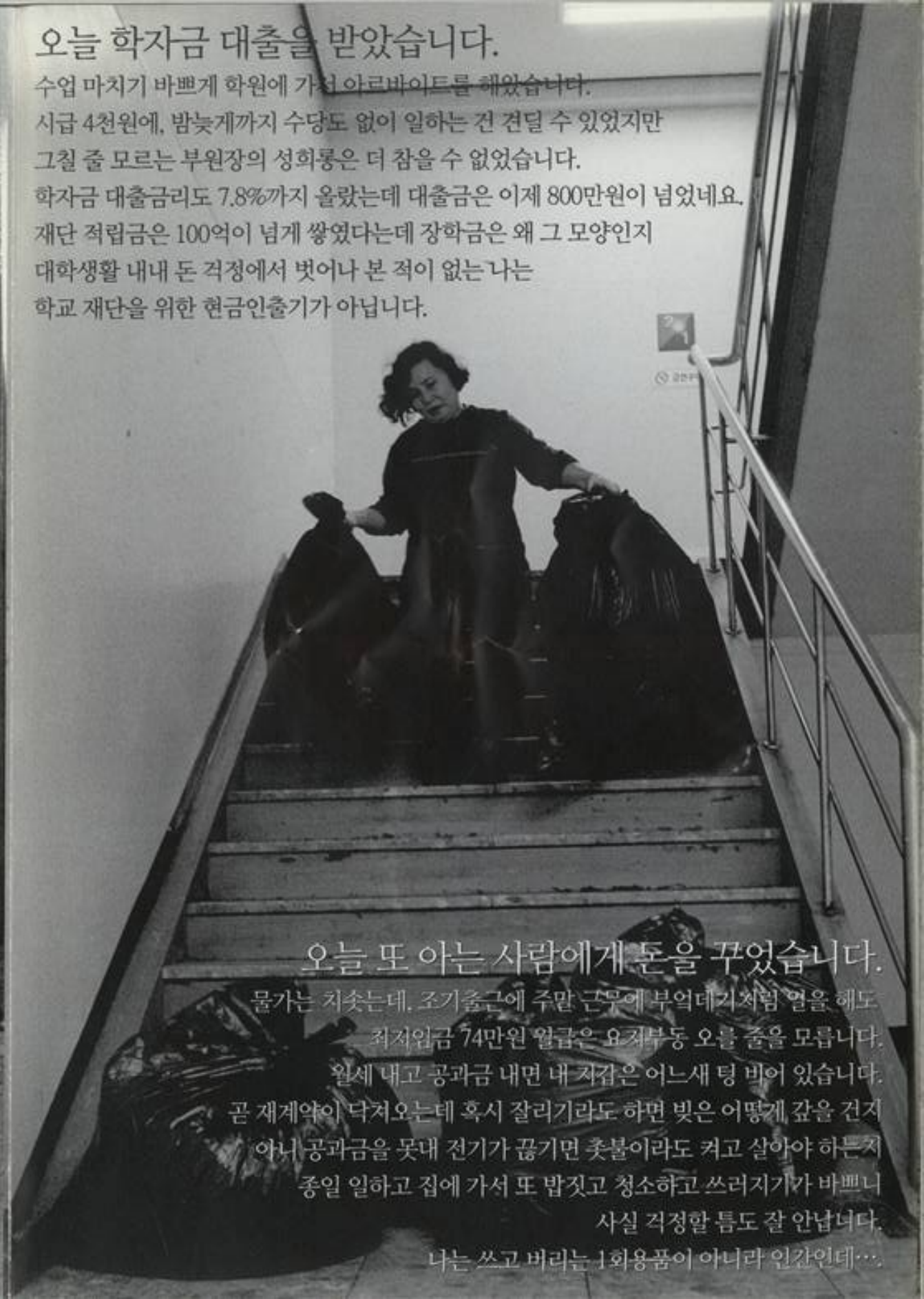
입학했을 때는 내 앞에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논스톱'같은 드라마에 너무 빠져 있어서 그랬는지도 모르죠.
 우리를 가리키는 말이 '88만원세대'가 될 줄은 미처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어느새 비정규직이 절반이 넘고, 취업문은 바늘구멍보다 좁아졌네요.
 강의실에도 교수들보다 시간강사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나는, 대학을 가지 못해 차별받는 친구들보다는 행복한 걸까요?

나는 대학을 다닙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가장 먼저 교문을 들어서지만
 나는 이 학교에서 제일 낮은 신분의 청소아줌마입니다.
 교수님과 직원들 눈에도, 학생들에게도 나는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구부정한 자세로 마포질을 하느라, 무거운 쓰레기더미를 나르느라
 신경통과 관절통으로 온 몸에 안아픈 데가 없지만
 잠시라도 쉴 곳은 화장실 아니면 종이박스가 깔린 지하복도입니다.
 그래도 일할 수 있어서, 나는 행복합니다.

오늘 학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수업 마치기 바쁘게 학원에 가던 아르바이트를 해왔습니다.
 시급 4천원에, 밤늦게까지 수당도 없이 일하는 건 견딜 수 있었지만
 그칠 줄 모르는 부원장의 성희롱은 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학자금 대출금리도 7.8%까지 올랐는데 대출금은 이제 800만원이 넘었네요.
 재단 적립금은 100억이 넘게 쌓였다는데 장학금은 왜 그 모양인지
 대학생들 내내 돈 걱정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는 나는
 학교 재단을 위한 현금인출기가 아닙니다.



오늘 또 아는 사람에게 돈을 꾸었습니다.

물가는 치솟는데, 조기출근에 주말 근무에 부업대기처럼 일을 해도
 최저임금 74만원 월급은 요저부동 오를 줄을 모릅니다.
 월세 내고 공과금 내면 내 지갑은 어느새 텅 비어 있습니다.
 곧 재계약이 닥쳐오는데 혹시 잘리기라도 하면 빚은 어떻게 갚을 건지
 아니 공과금을 못내 전기가 끊기면 촛불이라도 켜고 살아야 하든지
 종일 일하고 집에 가서 또 밥짓고 청소하고 쓰레지기가 바쁘니
 사실 걱정할 틈도 잘 안납니다.
 나는 쓰고 버리는 1회용품이 아니라 인간인데...



이제 나는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제 그런 대학에 비슷비슷한 스캔, 여정인 나에게
세상이 열어주는 문은 정말 좁기만 합니다.

교사가 꿈이었던 전배는 결국 기간제 교사가 되었고

이따운선 수되라고 수백대 월의 경쟁을 이겨낸 친구는
계약직 하타운자가 되었습니다.

취업 게시판을 아무리 보려봐도 보이는 것은 비정규직 일자리와
대출금 갚기에도 모자라는 월급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 막막함.

그러나, 차면서도 공공 신음소리를 내는 부모님께

대학원이나 해외 연수 얘기를 차마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부장님이 이제 나가라고 합니다.

미운털이 박히면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일자리라서

얼마 안되는 원금으로 소장님 밥값, 부장님 담배값 상납하며 일했는데
재계약하면서 인원을 줄이더니 나이 많다고 나오지 말랍니다.

10년 동안 일해왔던 학생회관 뒤에 앉아서

맑은 햇살 아래 화사하게 웃고 자껄이는 학생들을 보고 있자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나에게는 아주 소중한 꿈이 하나 있습니다.

원전다운 삶의 시작과 의지와 당연한 권리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34조 1항)

참가신청서

이름	학 교	이름
연락처		
이메일		
한 마디		

위와 같이 2009 학생포럼에 참가하고자 합니다

2009.

이름

(서명)

살아갈 권리, 구걸하지 말고 쟁취하자!
 Don't beg for the right to live, take it!
 -프랑스 최초고용계약법(CPE) 투쟁 당시의 낙서

2009 “대학 비정규노동을 말하다” 프로그램 안내

22일 금	5시	다큐 “아마추어의 반란” 상영 (80분)
	7시	강연 “노동, 꿈이 아니라 악몽이 될 때” / 홍기빈
23일 토	2시	토론 “청년들은 개미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5시	대학 비정규노동자들과의 만남 “다시 연대를 말한다”
행사기간 내내		사진전 “거기 있었다” - 세종대 포문
		기획자보전 “아직 비정규직이 되지 않은 당신에게”

[영상] ‘아마추어의 반란’ 22일(금) 17시

최강의 뻔뻔한 놈이 나타났다! 가난뱅이라고 손가락질하는 놈들을 보기 좋게 비웃고, 유쾌하고 기발한 방식으로 격차(格差, 양극화) 사회 일본에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마쓰모토 하지메(松本 哉)와 ‘가난뱅이 대반란집단’. 가난하지만 할 말 많은 일본 젊은이들의 통쾌한 반격!

-감독 나카무라 유키 / 2008 / 80분

[강연] “노동, 꿈이 아니라 악몽이 될 때” 22일(금) 19시

강연자: 홍기빈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국제정치경제 칼럼니스트)

더 열심히 일하고 공부할수록 더 가파른 경쟁과 불안한 미래에 직면하게 되는 답답하고 이상한 현실. 전 세계적 경제위기를 맞아 20대가 꼭 알아야 할 경제와 노동이야기. 명강의로 유명한 홍기빈 선생님과 함께 풀어봅시다.

[토론] “청년들은 개미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23일(토) 14시

참여 패널: 박권일(88만원세대 공저자), 한운형(키보드워리어 전투일지 저자), 최하얀(학생네트워크 회원), 장성국(명지대 09학번)

생존을 위한 무한경쟁의 개미지옥에 갇힌 청년들이 스스로 대안을 찾기 위한 난장. 박권일, 한운형 등 패기넘치는 논객들이 참석하여 토론의 즐거움을 한껏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앉아서 그냥 듣기는 심심하잖아요? 다양한 토론기법을 통해 직접 참여하며 생각을 키워갑니다.

- “내 안에 숨어있던 생각들 끄집어내기” 게시판토론
- “토론 달인들과 함께 하는 불꽃튀는 토론의 진경” 패널토론
- “나에게 비정규직은 □□□이다. 왜?” 조별 토론

[만남] “다시 연대를 말한다” 23일(토) 17시

“우리 일하는 건 빗자루만 알지.” 학내 비정규노동자들과 함께 해온 학생들과, 순웅과 체념을 넘어 권리찾기에 나선 노동자들의 연대와 희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 연세대, 성신여대 비정규 연대활동 사례발표
- 학내 비정규노동자들과의 대화

[사진전] “거기 있었다”

2007년 3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세종대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모습을 담아낸 기록 사진전 거기있었다. 거리에서, 강의실에서 그리고 식당에서 만났던 캠퍼스 속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모습은 우리대학의 또 다른 자화상이었다.

-세종대 사진집단 포문